



〈윤석민〉

〈양현종〉

〈서재응〉

〈이대진〉

# 노장들의 관록, 팔팔한 패기 잠재웠다



## KIA 日 전훈캠프를 가다

미야자키=김여울 기자



## 서재응·이대진 흥백전서 윤석민·양현종에 완승 이종범도 5안타에 2타점 맹활약 이대진과 MVP

노련미가 패기를 제압했다. 일본에서 스프링캠프중인 KIA 타이거즈가 15일 미야자키 휴가시 오쿠라가마구장에서 6번째 자체 흥백전을 치렀다. 이날 경기에서 윤석민과 서재응은 각각 홈팀과 백팀의 첫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다. 양팀의 두 번째 투수는 양현종과 이대진. 4명의 투수가 2이닝씩을 책임지면서 흥백전은 패기와 노련미의 마운드 대결 양상이 됐다. 패기파와 노련미파의 심점내기까지 진행되면서 경기 분위기는 어느 흥백전 보다 뜨거웠다. 양팀 벤치에서는 노래까지 동원된 응원전이 전개됐고, 판정 논란(?)까지 벌어졌다.

제재했다. 페이스가 흔들린 윤석민은 갑작스런 제구 난조로 볼넷을 허용하며 무사 위기를 맞았고, 이종범의 2타점 적시타가 터지면서 접수는 1-3이 됐다. 1라운드는 서재응의 판정승으로 마무리 됐다. 3회부터 양현종과 이대진의 맞대결이 펼쳐졌지만 이번에도 노련한 이대진의 승리였다. 3회초 첫 타자 김상현을 중전안타로 내보낸 양현종이 폭투와 볼넷까지 기록하며 3회 1실점을 했다. 양현종은 4회에 김원섭·이종범의 연속 안타에 이어 김상현에게 적시타를 허용하며 2이닝 2실점을 기록했다. 반면 서재응에게 마운드를 넘겨받은 백팀

의 투수 최고참 이대진은 2이닝을 삼자범퇴로 막았다. 탈삼진도 3개를 기록하는 등 2라운드 대결에서도 노련미의 완승이었다. 15일 KIA 캠프를 찾은 SBS 스포츠 김용희 해설위원은 “두 젊은 투수가 힘으로 승부를 펼쳤다면 서재응과 이대진은 노련함으로 타자들을 제압했다. 코너를 공략하고 강약을 조절하는 등 노련함이 돋보였다”며 “윤석민이 실점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공 자체는 훌륭했다. 하지만 판정 논란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게 보였다.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투구를 해 높은 볼이 두 개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만큼 침착하고 여유있는 승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위원의 평가처럼 공 자체의 힘은 패기파가 앞섰다. 윤석민은 이날 147km의 직구를 던져 4명의 투수 중 가장 빠른 구속을 기록했다. 양현종의 직구도 143km를 찍었다. 이에 비해 두 노장 투수의 최고 구속은 138km로 윤석민의 슬러더보다 스피드가 떨어졌다. 하지만 경험을 통한 침착함과 노련미가 양팀 투수 대결의 승패를 갈랐다. 한편 이날 타석에서는 이종범이 5안타를 몰아치는 맹활약을 선보이며 이대진과 함께 경기 MVP가 됐다. 경기는 초반 리드를 지킨 백팀이 4-2로 승리했다. /wool@kwangju.co.kr

# 박찬호 첫 실전 패투 이승엽 첫 안타 신고

일본프로야구 오릭스 버펄로스에서 투타(투수·타자) 부문의 핵으로 평가받는 박찬호(38)와 이승엽(35)이 스프링캠프에서 벌어진 자체 평가전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박찬호는 15일 일본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 시민구장에서 열린 스프링캠프 세 번째 청백전에서 백팀의 선발투수로 나서 2이닝 동안 안타 3개를 맞았지만 접수를 주지 않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두 차례 평가전에서 2타수 무안타, 사 4구 2개에 머물렀던 이승엽도 이날 깨끗한 우전 안타로 청백전 첫 안타를 신고했다. 지난 1일 스프링캠프 개막 후 볼넷에 서만 페이스를 끌어올렸던 박찬호는 이날 등판을 지원했다. 우중충한 날씨에 강풍마저 불어 쌀쌀했지만 박찬호는 직구와 커브, 투심패스트볼 등을 자유자재로 섞어 20개를 던지며 일본 무대에서 첫 실전 등판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최고시속은 138km가 찍혔다. 아직 2월 중순이고 정규시즌 개막(3



〈박찬호〉

〈이승엽〉

월25일)까지는 한 달 이상이 남았으나 페이스를 일찍부터 끌어올린 박찬호는 개막전 선발투수 후보답게 빠른 볼과 안정된 제구력을 선보이며 신뢰를 얻었다. 한편, 이승엽은 주자를 1루에 두고 들러서 4회 두 번째 타석에서 1, 2루를 총알처럼 꿰뚫는 안타를 터뜨렸다. 원하는 볼이 들어오자 적극적으로 방망이를 들린 이승엽의 적극성이 빛났다. 볼 카운트 0-3에서 백팀 세 번째 투수 가토 다이스케가 복판에 던진 직구를 날카롭게 잡아당겨 1, 2루 사이를 갈랐고 이승엽은 곧바로 대주자로 교체됐다. /연합뉴스

월25일)까지는 한 달 이상이 남았으나 페이스를 일찍부터 끌어올린 박찬호는 개막전 선발투수 후보답게 빠른 볼과 안정된 제구력을 선보이며 신뢰를 얻었다. 한편, 이승엽은 주자를 1루에 두고 들러서 4회 두 번째 타석에서 1, 2루를 총알처럼 꿰뚫는 안타를 터뜨렸다. 원하는 볼이 들어오자 적극적으로 방망이를 들린 이승엽의 적극성이 빛났다. 볼 카운트 0-3에서 백팀 세 번째 투수 가토 다이스케가 복판에 던진 직구를 날카롭게 잡아당겨 1, 2루 사이를 갈랐고 이승엽은 곧바로 대주자로 교체됐다. /연합뉴스

# 박태환 내년 7월 29일 “런던 금”

## 자유형 400m서 2연패 도전 런던올림픽 세부 일정 공개



“마린보이” 박태환(단국대·사진)은 내년 7월29일(이하 한국시간) 새벽 남자 자유형 400m에서 올림픽 2연패에 도전하고, ‘인간 탄환’ 우사인 볼트

타디움 등이 밀집한 올림픽공원에서 나오는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된다. 400m에서 시동을 건 박태환은 내년 8월2일 새벽 자유형 200m에 도전한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아쉽게 은메달에 그친 이종덕에서 금메달 사냥에 나서는 박태환은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미국)와 ‘인간 어뢰’ 이언 소프(호주) 등과 맞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신·구 수영 스타들의 대결을 직접 지켜볼 수 있는 이날 경기에 조직위는 최대 450파운드(한화 약 81만2600원)의 입장료를 책정했다. 런던 올림픽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100m에서 다시 출발선에 선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1년5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회 종목별 세부 일정을 확정해 1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박태환이 2연패에 도전하는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전은 수영 경기일정이 시작하는 내년 7월29일 열린다. 박태환이 이날 우승한다면 올림픽스

‘마린보이’ 박태환(단국대·사진)은 내년 7월29일(이하 한국시간) 새벽 남자 자유형 400m에서 올림픽 2연패에 도전하고, ‘인간 탄환’ 우사인 볼트(자메이카)는 8월6일 새벽 육상 남자 100m에서 다시 출발선에 선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1년5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회 종목별 세부 일정을 확정해 1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박태환이 2연패에 도전하는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전은 수영 경기일정이 시작하는 내년 7월29일 열린다. 박태환이 이날 우승한다면 올림픽스

### ■ 호랑이들의 말·말·말...

- ▲바닷바람 한번 쏘 보실래요? = 얼굴이 많이 탄 이종범, 캠프를 찾은 SBS 스포츠 안경현 해설위원이 얼굴이 못쓰게 됐다고 하자.
- ▲이종범 이종범 안타 이종범=15일 자체 흥백전에서 백팀의 이종범이 2타점 적시타를 치고 덕아웃으로 돌아와 백팀 선수가 이종범의 응원가를 열창하며.
- ▲그냥 툭툭 쳐서 집어넣으면 돼요 = 웨이트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펜스 쪽으로 넘어갔다. 1루 주자 윤정우는 이미 스타트를 끊은 상황. 더블 플레이로 판단한 홈팀 수비진이 덕아웃으로 철수했지만 주심이 공이 빠졌다고 선언하면서 1사 2·3루에서 경기가

- 이범호. 자신의 타석에서는 체인지업 커브 등 변화구만 던지던 트레이비스가 김상현에게는 초구로 직구를 던져주자.
- ▲제가 집어넣어요 = 트레이비스 라이브 피칭 타석에 선 김상현. 직구와 변화구 던질 때의 다른 습관(흔히 말하는 쿠세)을 잡아챘다며.
- ▲오늘은 돈을 걸어볼까 = 캠프 방문중인 KIA 김조호 단장이 흥백전에 앞서 우승팀 상금을 걸겠다고. 이날 승리한 백팀에게는 우승 상금 10만엔이 주어졌다.
- ▲공이 오다가 같이 멈춘대 = 1·2회 윤석민에게 연속해서 삼진을 당한 이범호와 얘기를 나눈 서재응. 이범호가 타이밍을 잡으려고 잠시 타격 동작을 멈추면 공도 같이 정지하는 느낌이었다며.
- ▲영민이 형이 착해요. 그런데 전화를 안

- 받아요. = 두산과의 연습경기에서 상대팀 고영민의 얘기를 하던 손영민. 광주 원정 3일 전부터 맛있는 거 사주라고 연락하는 고영민이 서울 원정 가서 연락하면 전화를 안 받는다며.
- ▲그냥 할아버지 아니고 젊은 할아버지 = 지난 1월 독일에 살고 있는 큰딸이 첫 아이를 낳아 할아버지가 된 조범현 감독. 할아버지가 된 소감을 묻는 질문에.
- ▲나 삼진 3개 잡았다 = 15일 흥백전 투수 MVP 이대진. 흥백전 실점 내기를 했던 윤석민이 애매한 판정으로 실점을 해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자.
- ▲그렇다면 인정합니다 = 실점 내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윤석민. 이대진이 ‘삼진 3개 잡았다’고 한마디 하자.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한정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을 추천합니다.

근린시설/영점				대외이사 010-7570-7525				축산시설/상가				경매대상 010-8033-0114				공정/토지				경매사 010-5879-0005				
소재지	대외이사	경매	회차	비고	소재지	대외이사	경매	회차	비고	소재지	대외이사	경매	회차	비고	소재지	대외이사	경매	회차	비고	소재지	대외이사	경매	회차	비고
영점	44500,24900	6491천	1190천	3중권공영	영점	44500,24900	6491천	1190천	4중공영	영점	44500,24900	6491천	1190천	4중공영	영점	44500,24900	6491천	1190천	4중공영	영점	44500,24900	6491천	1190천	4중공영

**병원,교회,사옥,모텔,상가 등 원하시는 부동산을**  
**접수해 주시면 가장 빠른시간안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찾아드립니다. ■ 상담 및 접수 010-7570-7525**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경매전문가(실무)과정)**  
**1학기(15주) 수강생모집 2011년 2월 25일까지 마감**  
**·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실무교육반 50명 ■ 상담 및 서류접수 236-3400**

**태양부동산 재테크컨설팅**

호남경매신문지사,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 (20년 경력)

근린시설	서구 화정동 토지 488평 건평 759평 3층건물 27억 최저가 19억
근린주택	담양군 금성면 월물리 토지(209평) 건물60평 현식당영점 8천3백만
근린상가	남구 백운동 토지(105평) 건물82평 건물가 3억5천만 최저가 1억9천만
상업용지	공산구 백운동 내대지 198평 건물가 8억 최저가 5억9천만
주요소	서구 세하동 토지523평 건물138평 서광주영부근 건물가 12억 최저가 8억6천만
기타·토지	회순군 도곡면 천림리 대지 154평 현향내대지 5천8백만

**이외 상담물건, 산토지 다수분양, 소액투자상담**  
**광주 서구 마곡동 도시철도공사 부근**  
**T. 010-4911-4989 FAX. 062-376-6611**

**신진공인중개사 (임대전문)**

▶ **목포 옥암동 사우나(2·3층) 4층 빌딩매매**

- ▶ 대지(중심상업): 210평
- ▶ 건물(4층): 470평(2007년신)
- ▶ 매매가격: 23억원(대출 14억원 포함)

▶ **고흥군 금산면 토지매매**

- ▶ 계획관리지역: 면적-14,000평, 8,500평 (10도 경사, 2차선 도로접)
-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 **남구 송하동 토지매매**

- ▶ 대 지: 1500평(6차선 도로접)(700평)
- ▶ 자연녹지: 700평 ▶ 일반공업지역: 800평
-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 **북구 동림동 토지매매**

- ▶ 대 지: 6500평 @1200평
- ▶ 준주거지역(동림2지구 건너편)
- ▶ 건 물: 6상가 30평, 창고80평 @상가 200평 공장200평
-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 **광산구 일전동 토지매매**

- ▶ 대 지: 2000평(생산지지역)
- ▶ 6차선 도로면(공장, 물류창고, 차고지 등)
- ▶ 매매가격: 17억원(건물 600평 포함)

문의: ☎ 061-644-4265, FAX.523-8558

**중앙공인중개사**  
010-3162-4989

♣ **상가건물**

- ☆ 보증금: 10억원
- 월 세: 4,300만원
- 매매가: 73억원
- ☆ 보증금: 8억원2천
- 월 세: 1,330만원
- 매매가: 28억원

♣ **전원주택**

- ☆ **광산구 오운동**
- 대 지: 322㎡, 건물: 95㎡
- 매매가: 5천만원
- ☆ **담양대전면 한재굴**
- 대 지: 1,330㎡, 건물: 60㎡
- 매매가: 2억9천만원

♣ **대지,전.단.임야**

- ☆ **치평동 대지: 370㎡**
- 매매가: 13억5천
- ☆ **마곡동 대지: 1,350㎡**
- 매매가: 22억원
- ☆ **장성 남면**
- 임 야: 13,500㎡
- 매매가: 4억5천만원

♣ **공장부지**

- ☆ **광산구 양동**
- 잡종지: 11,856㎡
- 매매가: 2억9천만원

062-374-5945  
010-3162-4989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신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  
주시내권 및 시외순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시실분과 연일 손 손님  
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  
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어드리겠습니다.

☎ (FAX)223-1772 벨인 011-802-2532  
(광주광역시 신촌동 대인동삼일부동산)